

근로자 건강관리가 곧

조합원에 대한 집단

부산시 국제공동의료보험조합 은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에 대한 집단 자궁암 검사를건강관리협회부산지부와 함께 실시했다.

조합원 5,000여 명 중 약 1,000명이 검사에 참가했던 이번 검사사업은, 그동안 자신의 건강을 방기(?)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의 조기발견과 이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



복지 사회로 가는길

자궁암 검사를 실시한 국제공동의료보험조합

을 뿐 아니라, 보건교육이 얼마나 필요한 가를 새롭게 각인시켜 주었다.

어떻게 이루어졌고,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취재하면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국제공동의보의 적극적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 주고받는 인사속에 따뜻한 정이

오랜 세월동안 바닷바람을 마시며 낭만이 어우러져 흡사 조각품과도 같이 나타나는 우리의 도시-부산.

수많은 인재들의 숨결이 모여 힘차게 뗏어 가는 대로에는 오늘 우리를 살찌우는 수출의 동맥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눈을 뜨면 어제와 또 다른 빌딩숲이 웅장한 자태를 보인다.

따사로운 봄빛을 따라 도착한 국제공동의료보험조합은 여느 사무실과는 달리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진다. 주고 받는 인사속에 정이 담긴 것은 아마도 국제공동의료보험 조합에서 환원사업으로 집단자궁암검사를 처음 실시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직원들의 자부심에서 나타나는 선입감때문인지도 모른다.

● 정기검사 필요성을 체험으로 깨닫게 한 자궁암검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건강검사를 받을 여유가 있나요? 그리고 평상시 아픈데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라면서 당시 자궁암검사를 받은 후 유소견자로 밝혀져 치료를 받고 완치된 이영자(53세)씨는 말한다.

『집안 형편은 어렵고 제몫 하나를 밀천으로 이 직장에 입사해서 자식들 공부시킨다는 신념 아래 힘든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건협에서 받은 자궁암검사 결과에서 암의 초기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정말

“건강”이 잘사는 일에 있어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의 일임을 이번 자궁암 검사를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고 조합원들은 말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다행히 건협부산지부 직원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시고 병원에 알선해 주셔서 지금은 완치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죠.』

『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었지요』 이영자씨와 같이 자궁암 유소견자로 판정된 회사동료 오경순(42세)씨가 말을 받는다.

『저는 어릴때부터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던 건강한 사람인데 이번 검사에서 자궁암 초기증상이 있다고 해서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제가 알기론 암에 걸렸다면 아픈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건협검사결과를 믿지않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결과는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제가 무서운 암에 걸리리라고 상상도 못했던거죠. 그러던 차에 부산지부 부속의원 최혜규원장님께 찾아가 상담을 드렸더니 보건상식이 전혀 없었던 저로선 부끄러운 생각 뿐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자궁암 초기증상이므로 치료만 받는다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성인병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기발견하면 경제적 부담도 적고 완치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비로소 건강체 질이라고 자랑하던 지난날의 제모습이 남의 눈에는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았고 건강상식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후 생활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영자씨와 오경순씨는, 『저희 이웃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에 건강검사는 엄두도 못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니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건강검사가 필요하느냐며 코웃음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경우처럼 사전에 예방하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이해를 하시면서 자기도 건강검사를 하겠다고 건협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사를 받아보기로 했구요.』

● 근로자 보건 의식 개선에 많은 노력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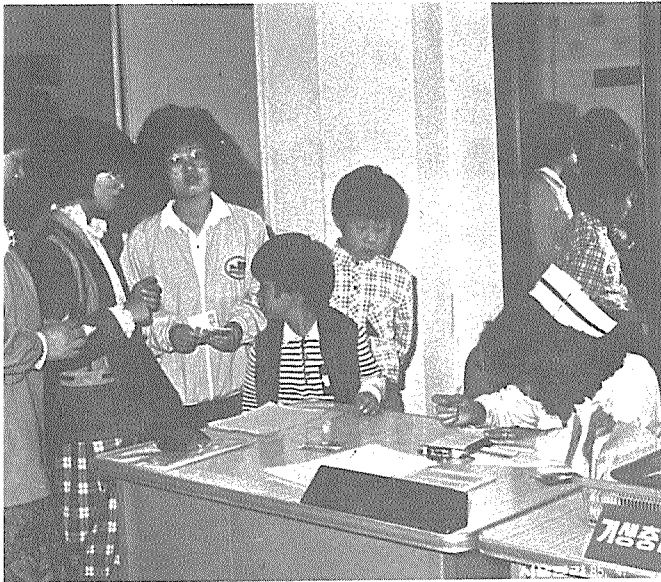
두 사람의 경우처럼 건강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계속 늘면 의료보험조합 사업이 조합원의 적극적인 호응과 함께 추진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제공동의료보험조합 양귀생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웁습니다. 사실 저희 조합에서 처음 자궁암검사를 시작할 때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은 건강하니까 일을 하는데 건강검사를 왜 하느냐, 내가 자궁암에 걸린 것 같으냐는 등... 심지어 자궁암검사가 성병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무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 그렇다면 사전교육이 필요했을 텐데요?

『물론 사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저의 회사의 겨우 24시간 교대근무제에서 오는 교육시간 선정의 어려움과 작업성과 미달 등 사내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저학년 수준의 단순노동자로 운영되므로 보건 의식에 대한 무지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사전교육을 실시하는데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틈이 나는대로 보건계몽을 위한 영화상영, 슬라이드상영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보건 의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옆에 있던 문명주과장이 말을 받았다.



근로자의 보건 의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건강”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시켜내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제공동 의회는 얘기한다.

『이번 자궁암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교육을 통하여 근로자들 자신이 자발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작업인원 5,000여명중에서 5분지 1에 해당하는 1,000여명이 검사를 했으니 저희 사정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양귀생부장이 말을 이으며,

『이번 자궁암검사 결과 총 검사인원 1,055명중 10.1%에 해당하는 107명의 근로자가 유소견자로 밝혀진 것을 보면 검사에 불참한 근로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자궁암이 발전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생활고 때문에 치료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자궁암 검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며 향후 사업계획을 밝힌다.



“어려운 일인만큼 그 가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면 진실되고 성실하게 찾아내어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양귀생부장은 강조한다.

● 근로자 건강 위한 사업을 찾아서 일하는 성실성을...

- 말씀하신대로 이번 국제공동의보조합에서 실시한 자궁암검사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그만큼 고충이 뒤따랐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검사가 타 의료보험조합에 던져준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상당한 고충이 있으리라 보는데요.

『모든 일이 쉽다면 그만큼 가치가 없지 않을까요? 어려워지만 결과만 좋다면 그만큼 일한 보람을 찾을 수 있겠지요. 타의료보험조합에 던져준 의미라기 보다는 근로자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면 진실되고 성실하게 찾아서 실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근로자의 건강이 곧 복지사회건설의 기본

어려웠던 일들을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가벼운 웃음으로 답변을 해 주는 양귀생부장, 그의 표정에서 기자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직원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열과 성을 다하는 국제공동의료보험조합이 결코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진정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의료보험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순수한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퇴근길의 수 많은 근로자대열에 끼여, 기자는 오늘 선진국대열에 성큼 다가간 우리 경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서 건전한 정신,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너와 내가 뭉치고 우리와 우리가 합쳐서 한울타리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일로 매진할 때, 그것은 바로 선진국이 되었음을 알려 주는 길이기애 새삼 뿌듯한 마음으로 근로자들과 함께 밖을 나섰다.



건강한 정신,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음을 근로자와 함께 하는 동안 느낄 수 있었다.

● 정기건강검사 생활화에 주력할 터

부산지부 하성미사무국장은 『우리 부산시 관내에는 각종 사업체가 많습디다만 건강검사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내특수성으로 인하여 아직도 집단검사를 못한 사업체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계몽차원에서 이번 국제공동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한 자궁암 검사는 커다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지부에서는 보건계몽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각종 사업체 뿐만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도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